

도 전분은 높은 인슐린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추론하였다.

이에 연구자들은 정상인 10명을 대상으로 포도당, 자당, 전분 그리고 과당 각 75g씩 유동식 형태의 당부하 검사를 시행하여 혈중 인슐린, 혈당, 글루카곤, C-peptide, 성장호르몬등을 공복시와 당 섭취후 30분, 60분, 90분, 120분에 각각 혈청을 채취, 측정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혈당치는 포도당과 자당 부하검사 사이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데 반하여 포도당 및 자당 부하검사는 전분 및 과당 부하검사에 비해 30분, 60분에서 각각 높은 혈당치를 보였다($p < 0.05$).

2) 혈중 인슐린치는 포도당과 자당 부하검사의 경우 전분 및 과당 부하검사에 비하여 30분, 60분, 90분에서 뚜렷한 상승을 보였고($p < 0.05$), 특히 자당은 포도당에 비하여도 60분과 90분에서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p < 0.05$).

3) 그러나 전분은 과당 부하검사에 비해 30분에서 낮은 인슐린반응을 보였고($p < 0.01$), 포도당과 자당에 비해서도 전반적으로 낮은 상승을 보여주어 이전의 연구 보고와 다른 양상을 보였다.

4) 혈중 C-peptide 역시 인슐린치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지만 인슐린에 비하여 각 부하검사간의 차이가 더욱 뚜렷이 나타났다($p < 0.01$).

5) 혈중 글루카곤은 여러 당 부하검사간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찾을 수 없었다.

6) 성장호르몬 역시 여러가지 당 부하검사간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찾을 수 없었다.

16. 말단비대증 환자 10예에 대한 임상적 고찰

경희의대 내과

장영운 · 양인명 · 김진우 · 김영설
김광원 · 김선우 · 최영길

말단비대증 환자의 임상경과 및 치료에 대한 비교판찰은 외국의 경우 많이 보고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이러한 보고가 드물다. 이에 연구자들은 1979년 5월부터 1984년 7월까지 경희대학교 부속병원 내과에 입원하여 말단비대증으로 진단받고 치료받거나 또는 현재까지 치료중인 1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그 병태생리 및 치료효과를 비교 관찰하여 보고하는 바이다.

1) 남녀비는 3:7, 평균연령은 40세, 평균 유병기간은 9년 6개월이었다.

2) 전 환자에서 전형적인 말단비대증의 외형을 보였으며 증상빈도는 두통, 발한, 무력감, 시력장애 순이었다.

3) 전 환자에서 Skull x-ray 상 터어키안이 커져 있었고 4예는 후상상돌기가 파괴되어 있었다. 뇌전산화 단층촬영상 모든 예에서 터어키안 내의 종괴가 발견되었다.

4) 당부하에 의한 성장호르몬 억제반응과 인슐린 유도 저혈당에 대한 성장호르몬의 반응은 모두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5) TRH에 대한 성장호르몬의 역설적 반응은 6예에서 시행하였던 바 모두 반응을 보였으나 LRH에 대한 성장호르몬의 역설적 반응은 3예에서 시행하였던 바 모두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6) 2예에서 Somatostatin 투여후 성장호르몬의 억제 반응을 보였던 바 기저치에 비해 성장호르몬이 1예에서는 85%로 현저히 감소하였으며 1예에서는 46%로 감소가 현저하지 않았다.

7) 수술을 시행받은 6예중 1예는 수술후 1년간 임상증상의 호전 및 성장호르몬의 기저치가 저하하였으나 재발하였고 나머지 예에서는 수술후 임상증상의 호전과 성장호르몬의 감소가 나타나지 않았다.

17. 부신피질에 발생한 악성종양 1예 보고

경희의대 내과

이중연 · 양인명 · 김진우 · 김영설
김광원 · 김선우 · 최영길

부신피질암은 장년기에 잘 발생하는 악성종양으로 호르몬분비 유무에 따라 여러가지 임상증상을 나타낼 수 있는 흔치 않은 질환이다. 악성종양에 의한 부신피질기능항진증은 일반적으로 예후가 불량하지만 종양의 크기, 체중감소 유무, 뇨중 17-Ketosteroid 분비정도 및 조직학적 소견등에 따라 예후가 다르다. 치료로서 외과적 절제를 필요로 하며 O.P'DDD와 Aminogluthimide 등이 사용되어 왔다.

연구자들은 1984년 10월 경희의료원 내과에 입원하여 부신피질암으로 진단된 1예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환자는 전신 무력감 좌측 상부부 동통을 주소로 입원한 46세 여자환자로 1983년 5월 부신피질암으로 인한 쿠싱증후군으로 진단받고 좌측 부신피질절제를 시행받았으며 수술후 호전되었다가 14개월후부터 복부팽만감,